



돈사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유성열
((주)삼양사 축산시험장장)

돼지를 기르는 사람은 하루에도 열번이상 돈사를 드나든다. 작은 돈사로 이루어진 농장은 몇번인지도 모를 정도로 자주 드나들어야 한다.

돈사에 들어가면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가? 비육·육성·자돈사를 중심으로 알아보자.

돈사 출입문을 열고서 신발바닥에 충분할 정도로 소독액이 묻도록 소독판을 밟고 들어선다.

출입구 가까운 벽에 붙은 돈사 현황판을 본다. 기록은 오늘 날짜로 정정되었는가? 작업계획판에는 무슨 일이 적혀 있는가?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는 됐는가? 누구와 협의해서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가? 언제 어디에 준비하는가를 생각한다. 사육두수의 변동은 어떤가? 보통때 보다 폐사가 많지 않은가?

사료량은 적정재고를 유지하고 있는가? 환돈의 두수와 치료는 어떤가?

입구에 쌓아놓은 사료는 잘 정리됐는가? 쥐가 뚫어서 흐르지는 않았나? 쥐약은 놓아졌는

가? 파리약도 제위치에 놓여있고 파리는 적어졌는가? 잠깐씩 돌아 보면서 확인한다.

서 있는 동안 느끼는 온도와 눈높이의 온도계에 보이는 온도를 확인한다. 먼저 들어왔을 때와 비교한다. 밖에서 느낀 온도와 온도계에서 보이는 온도를 비교한다.

겨울철에 할일을 생각해 보자.

아침 첫 작업을 위해 들어갔을 때 반대쪽 출입구가 흐리게 보이거나 공간이 뿌옇게 보인다면 습기가 아주 많다는 증거다. 낮에 들어갔을 때 맞은편 문이 흐리게 보이면 먼지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돈사는 반드시 환기시설을 보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른 봄부터 초여름까지 호흡기 질병으로 인한 약값과 폐사돈의 피해는 환기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비용보다 더 크다. 얼굴이 끈끈하게 느껴지면 과습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또 돈사를 나온 후 30분이 지난후에도 옷에서 돼지 냄새가 나도 과습한 돈사다.

돈사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조용하고 낮은 소리를 내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

“사람이 들어 간다”하고 신호를 하고 들어가면 좋다. 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눈으로 사람을 보게되면 돼지가 놀라게 된다. 돈사에서 한마리라도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뛰면, 모든 돼지가 다같이 놀라서 뛰게된다. 이때 바닥의 똥을 밟고 미끄러지면 다치고 잘못되면 도태해야 한다. 같은 양돈장 식구라면 돈사에서 내는 소리를 같도록 하는 것이 좋다. 돼지가 놀라는 것도 스트레스이므로 좋을 것이 없다.

돼지가 싫어하는 소리에는 높은 소리, 큰 소리, 외마디 소리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금속성의 소리는 특히 싫어한다. 분만사에서 모돈은 금속성 소리를 들으면 젖을 먹이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긴장된 상태로 소리가 무엇인가 확인하려고 한다. 소리의 원인이 사람인 것을 확인한 후 다음 행동을 하게 된다. 에미의 이런 행동은 자연스럽게 자돈에게 현장 교육이 된다. 사람이 싫어진 자돈은 커서도 사람만 보면 긴장하고 놀라서 뛰게되어 다른 돼지도 덩달아 놀라 뛰게 한다.

작업중에 삽에 묻은 오물을 털기 위해 돈방을 타리에 삽을 탕탕치는 무심한 행동은 돼지에게 큰 불안감을 조성한다.

겨울에는 일과 끝난 후 가끔 양돈장을 도는 것이 좋다. 돈사에서 불편한 돼지소리가 들려오면 좀 덜 추운 잠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자리다툼하는 소리로 생각해야 한다. 이 소리가 늦은 시각까지 들리면 돈사의 보온이나 가운데 대해 생각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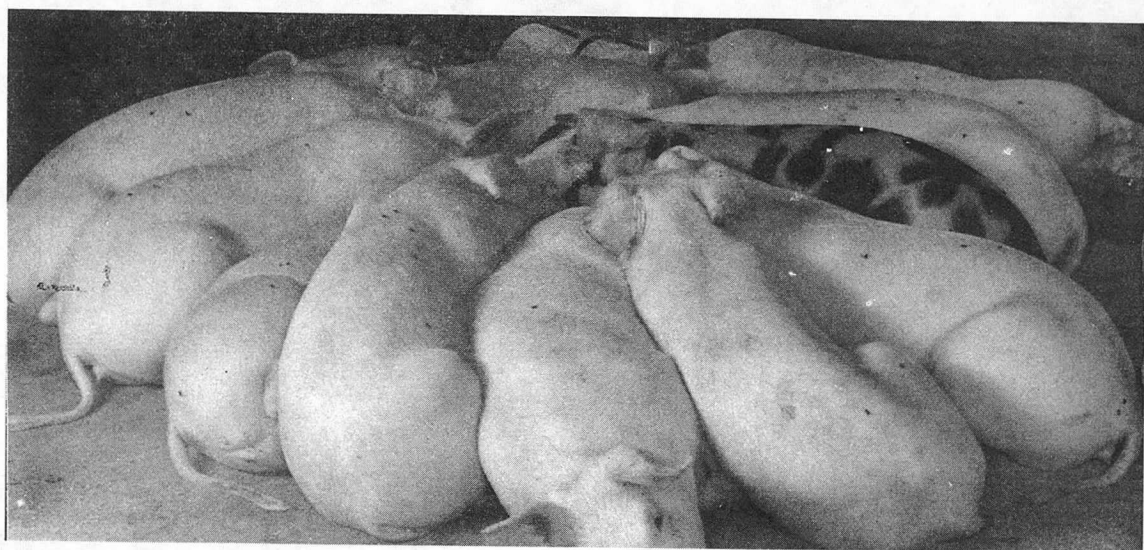
밤에 돈사에서 소리없이 조용히 있으면 돼지 숨소리가 들린다. 편한 소리인가, 고르가, 거친가, 몰아 쉬지 않는가, 불편한 숨소리가 아닌가 확인한다. 숨소리가 이상하면 손전등으로 숨쉴 때 배의 움직이는 모습과 몸 전체의 살집 상태를 정상인 돼지와 비교해 보고 이상하다면 돈방



번호와 개체 특징을 적는다.

복도를 걸어 갈때는 너무 느리거나 빠르지 않게 보통 속도로 평상시에 처럼 발소리를 가끔 내면서 걷는 것이 좋다. 돈방의 돼지상태를 자세히 본다. 편히 누웠는가? 멍쳐있는가? 가지런히 누웠는가? 포개서 누웠는가? 흩어져 있는가? 날이 더운 계절에는 바람이 들어오는 곳으로 머리를 두고 눕는 것이 정상이다. 또 급수기 둘레의 젖은 곳에 몰려서 눕기도 한다.

돼지가 사람에게 보이는 반응도 잘 살핀다. 포유자돈은 대부분이 사람을 보면 경계자세를 하거나 도망을 간다. 포유자돈은 사람에게 잡히면 주사맞고 귀 찢리고 쓰디쓴 약이나 먹게되고 다리가 잡혀서 허공에 거꾸로 뒹군다가 상자속에 들락거리게 되고 그러다가 주둥이가 아플 정도로 바닥에 떨어지니 사람이 보면 도망가는 것이 정상이다. 포유자돈에게 입부치기용 사료를 자주 주거나 제한급이를 하는 이유자돈은 사람을 보면 반가워하고 사료를 달라고 돈방 울타리 쪽으로 몰려든다. 자유채식을 하고 함방한 이유자돈은 사람을 보면 달아나려고 이리저리 몰려 다



니게 된다. 돼지가 온몸이 긴장된 상태로 꼬리를 몸에 붙이고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경계하고 있는 상태다.

돼지들이 유난스럽게 통로 쪽으로 몰리면서 꿀꿀소리를 내면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돈방의 상태, 급수기, 급이기를 확인한다.

사람이 온다는 것을 느끼면 누운 돼지들은 대부분 일어난다. 이후에 기침을 하거나 벽이나 울타리에 몸을 비벼대면 질병의 의심을 해 본다. 호흡기 질병과 외부기생충은 좋은 약이 많다. 그러나 쉬운 방법으로 한 두번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제일 좋다.

급이기를 들여다 보고 사료량과 마릿수를 연결시켜 생각한다. 사료가 많이 남았는가 또는 많이 먹었는가? 먹는 곳은 깨끗한가? 더운 철에는 곰팡이는 없는가? 급이기가 밀려다니지 않는가?

돈사의 중간쯤에서 돼지 키높이와 사람의 눈높이에서 온도계를 통해 온도를 확인한다. 출입구 온도와 비교한다. 돼지높이와 사람 눈높이

온도에서 3°C 이상 차이가 나면 돈사내의 공기가 잘 섞어질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특히 겨울에 돈사 내에서 더운 공기가 위에 몰려있다면 엄청난 에너지 낭비이고 돼지는 추워한다. 또 추위로 돼지의 성장이 더딘 것은 양돈장의 불이익이 된다.

돈방 바닥은 청소상태가 어떤가? 똥과 오줌의 상태 색깔은 어떤가? 똥 냄새가 이상하지 않은가?

사람을 따르는 돼지는 돈방의 작업자 바지를 물고 장난을 치므로 작업에 방해를 받는다. 사람이 두려운 돼지는 사람을 피하려고 멀리 떨어져서 몰려 있으므로 돈방내 작업에 도움을 준다.

환돈의 상태를 확인하고 투약하는 약이름과 양을 확인한다. 두수의 변화, 증상의 변화 여부를 확인하고 새로운 방법도 생각해 본다.

양돈장 주인도 돈사에 들어가야 한다. 돈사마다 하루 한번씩 돼지를 살펴본다. 분만사와 이유 자돈사는 두번씩 보는 것이 좋다. 특히 분만사, 이동직후의 이유자돈사, 합방후나 이동후의 돈방은 야간에도 한번씩 살펴보면 효과가 있다.